

日, 식품이력추적제 모든 식품 도입 추진 중소기업 시간·비용 부담 과제

최근 일본에선 식품안전을 크게 의심받고 있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원재료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한 방편으로 BSE(우해면상뇌증) 문제로 쇠고기에 도입된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모든 식품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식품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센베이 등 쌀과자를 제조 판매하는 산슈 제과에서는 3년전에 4천만엔을 들여 독자적인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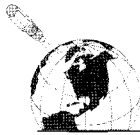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에서는 제조 번호부터 원료의 매입처를 나누어 표기해 원료에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그 원료를 사용한 상품을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이 회사는 이전엔 원료의 매입처 등을 노트에 기록해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원료가 어느 제조 라인으로 통해 생산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회사 대표는 "만일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시스템 도입이 금전적 부담 등을 가져오고 또한 시스템 도입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안전과 소비자 안심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쇠고기의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은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의 개체 식별 번호 등에서 소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 자랐는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쇠고기 이외의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도 상품의 이력을 더듬어 본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같다. 예를 들면 가공 식품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원료를 구매해 상품을 어디에서 생산해 출시했는지' 가공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일본 이력추적관리시스템협회 관계자는 "중국 산 냉동만두에 의한 중독 사건으로 인해 가공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원산지까지의 모든 생산이력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협회는 올해 생산자나 식품업자의 이력추적관리 데이터를 소매업자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가공 식품의 원료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검색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이 시스템의 대상이 특정 원재료나 상품에 한정되어 일본에서 유통하고 있는 모든 식품에 맞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야채나 과일을 복수로 가공한 냉동혼합 야채나 과일 통조림과 같은 가공품이다.

이들 원재료의 경우 야채나 과일이 언제, 어디서 생산이 됐고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가공업자가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전통과자협회 관계자는 "자급율이 1백%에 가까운 쌀을 제외하면, 야채나 고기 등 식품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인데 식품 원료의 원산지까지 가공업자가 파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는 부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이 많은 식품 가공업자들에게 있어서 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각부 식품안전 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확실히 정착시키려 한다면 상당한 돈과 시간이 드는데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던졌다. 또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식품안전"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지만 냉동만두 사건이나 오염쌀 등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 아무리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확실히 해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과학에 근거한 판단과 정보 제공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 맥도날드 테이크아웃 '레지봉투' 폐지 무표백 변경, 친환경 일조

일본 맥도날드는 구랍부터 전국의 약 3천7백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포장판매용의 폴리에틸렌제 '레지봉투'를 폐지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햄버거와 음료를 사는 경우, 지금까지는 폴리에틸렌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기 쉽게 포장했지만 앞으로는 소량이라면 작은 포장 그대로, 대량일 경우엔 휴대용 봉투에 넣어 건내준다고 했다.

봉투의 소재도 표백한 종이에서 무표백한 것으로 바꾸어 환경 문제에 대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레지봉투' 폐지에 따라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2천3백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EU, 5개 품목 에코라벨 기준 기한 연장 전구 및 각종 세제류 대상 2010년까지

EU가 5개 전구 및 세제에 대한 에코라벨 부여기준을 현행 기준을 그대로 최대 2010년까지 연장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해 11월 28일 자 EU 판보 L318를 통해 전구, 형광등,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세척용 식기세척기 세제, 다목적용 청소세제 등에 대한 에코라벨 부여기준을 현행 기준을 그대로 변경없이 둔채 기준 적용 시한만 추가적으로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들 품목들의 현행기준 부여 종료 시한을 앞두고 규정에 따라 기존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으며, 이번 결정은 이 검토 결과에 기초해 내려진 것이다.

연기된 시한은 품목별로 각각 다르나 모두 2010년 중으로 결정됐다.

전구의 경우 1999년에 처음으로 에코라벨 부여 기준이 제정됐으며, 이후 계속 기준 수정 및 연장을 통해 현행 에코라벨 부여기준은 지난 2002년 9월 제정됐다. 새로 연장된 기한은 2010년 4월 30일이다.

식기세척기용 세제 역시 1999년에 처음 기준이 제정됐으며, 이후 계속 기준 수정 및 연장을 통해 현행 에코라벨 부여기준은 지난 2003년 1월 제정된 것으로, 이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다(현행 기준 공고 판보 집행위 결정 2003/31/EC).

주요 부여 기준은 유독성, 생물분해가능성, 포장요건, 사용된 염료와 안료성분, 사용 편리성,

사용자 가이드 등이며, 새로 연장된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손세척용 식기세제의 현행 에코라벨 부여기준은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것으로, 이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다(현행 기준 공고 판보 집행위 결정 2005/342/EC).

주요 부여 기준은 유독성, 생물분해가능성, 포장요건, 사용된 염료와 안료성분, 사용 편리성, 사용자 가이드 등이고 새로 연장된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다목적용 청소세제 및 위생시설 청소세제의 경우 현행 에코라벨 부여기준은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것으로, 이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다(현행 기준 공고 판보 집행위 결정 2005/344/EC).

주요 부여기준은 유독성, 생물분해가능성, 포장요건, 사용된 염료와 안료성분, 사용 편리성, 사용자 가이드 등이며 새로 연장된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형광등의 현행 에코라벨 부여기준은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것으로, 이 기준은 2009년 5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으며 새로 연장된 기한은 2010년 7월 31일이다(현행 기준 공고 판보 집행위 결정 2005/360/EC).

유럽인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속에서, 최근 EU 집행위가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2천억 유로 상당의 경기진작 조치를 발표하면서 에너지 절약형 상품 수요 진작을 모색하며 품목별 친환경규제 제정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밝혀, 현재 진행 중인 에코라벨 기준 제정 및 개정 속도 역시 함께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마끼社 EQUIPLAST 참가 3Layer Coexflex-3.4를 전시

필름압출성형기 전문 제작사인 이태리 마끼 (MACCHI)사는 지난 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에서 개최된 2008 EQUIPLAST 전시회에 참석, 3Layer Coexflex-3.4를 전시했다.

3Layer Coexflex-3.4는 새로운 소재의 상하단 2중구조의 신개념 더블에어링으로서 카본화이버 소재로 제작되어 경량화 됐다.

구조상 특성으로는 냉각 에어의 흐름성이 현저히 개선돼 냉각 효율의 고도화로 생산성이 향상됐고 외내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현상이 발생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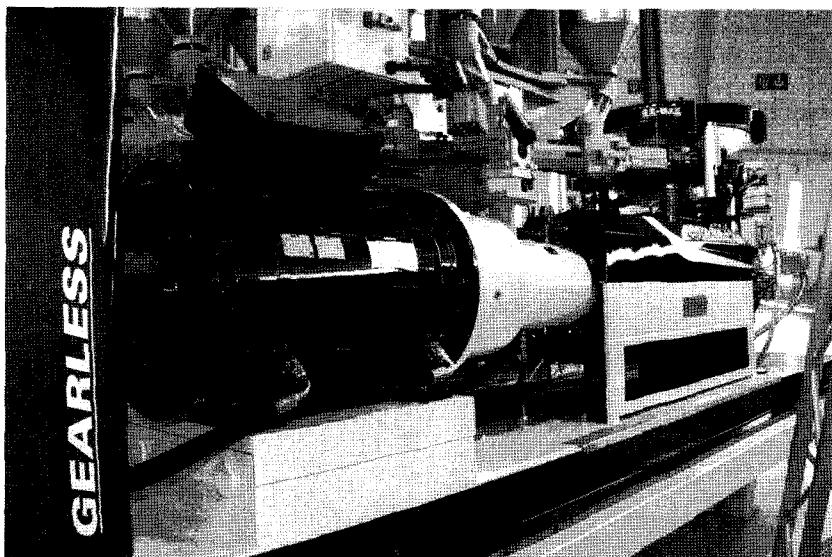
공급가격은 종래의 에어링과 같은 가격으로 공

급할 수 있게 돼 향후 마끼 블로운 압출라인의 에어링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좀더 콤팩트하고 다기능적인 운용성을 지닌 Coexflex-3 압출운용 콘트롤 패널을 자랑하며 좀더 쉽고 즉각적인 조작이 가능도록 구성된 유비쿼터스 개념의 무선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패널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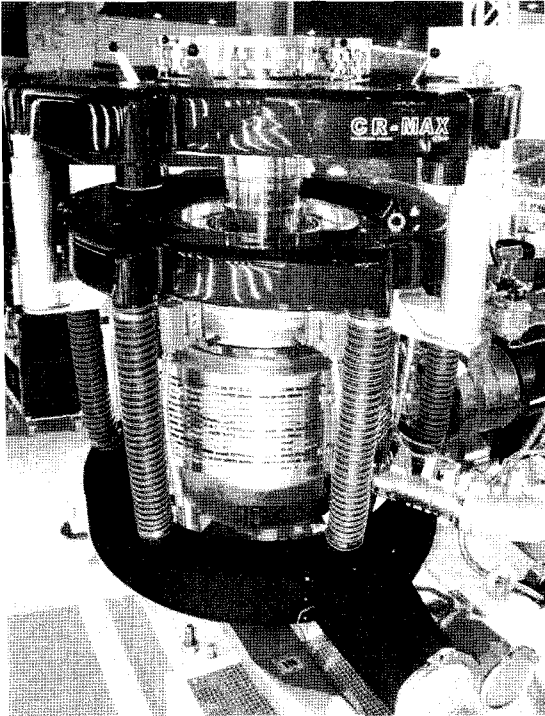
지멘스(Siemens) 기어레스 토크모타가 장착된 압출기는 이미 수년간의 운용실적 사례를 통하여 그 성능과 보수유지 측면 등 여러 기능들이 검증돼 날로 에너지 효율의 고도화 및 고품질의 필름을 제조하고자 하는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주문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Coexflex-3 플랫폼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된 이유는 짧은 시간에 조립과 생산을 가능케해 시운전 가동을 용이하게 한 콤팩트한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관심 초점은 생산성 증가를 현저하게



◀ gearless



▲ air max cooling ring

실현시킨 2중 상·하단 구조의 더블 에어 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과거의 경우와 비교할 때 참관인과 전시 업체수의 감소 관점에서 볼때 직전 전시회 대비 효과는 다소 낮았지만, 북아프리카, 남부 프랑스 그리고 남미측의 참관단이 줄었다는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스페인 지역에 마끼 블로운 필름 압출라인이 80라인 이상 설치 운용되고 있고 전시 기간 중에도 마끼의 스페인 고객들이 다수 참관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마끼사의 입지와 신뢰도가 확고 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모든 방문자들이 보여준 관심과 열정에

비하여 플라스틱 시장 여건의 긍정적이지 못해 신규 투자에 좀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끼가 스페인 마켓에 강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은 괄목할 만한 기술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유럽인들의 관심과 약속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마끼의 궁극적 목표는 기계 제작 공급업자로서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신뢰하는 동반자로서 함께 한다는 것을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고객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문의〉 동신인터내셔널(주)압출설비
 담당 김종오 차장 전화 : (02)431-8311
 핸드폰 : 010-5228-2581
 E-mail : augustine@dsicorp.com

EU, 식품정보 라벨 확대 논란 소용량 식품 대포장 사용 가능성

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정보라벨을 기존 라벨 크기보다 크게 만들고 표시되는 라벨의 내용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영국 이브닝스탠더드가 보도했다.

이번 식품관련 라벨 확대방침은 새로운 유럽 연합법에 따라 영국내 실제 적용되는 것이고 최근 목숨을 위협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국 식품과동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음료의 경우 작은 사이즈 캔을 사용하는 네슬레 크림은 기존 45mm의 라벨에서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게 되면 그 크기가 90mm까지



확대될 것이며, 코카콜라 라이트의 경우는 실제 로고의 크기를 줄여서 더욱 자세한 식품에 대한 정보를 라벨에 기록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한 식문화를 만들고 식품에 포함된 영양분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파악해 비만과 같은 질환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식품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연합법 내 식품 정보라벨 관련 정책은 어떤 포장이든 동일한 크기의 식품 정보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 작은 사이즈의 식품 포장은 라벨의 크기를 지키기 위해 큰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1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식품업체들은 연합해서 유럽연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벨기에, 1천9백개社 REACH등록
EU, 27개국 6만2천 기업 등록**

벨기에 화학 및 생명공학산업협회(essencia)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REACH 사전등록 기간이 구랍 1일 종료된 현재까지 벨기에에서는 1천9백개 기업이 총 6만5천개 물질에 대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을 한 이들 기업의 이들 물질은 EU 시장 내 판매 물량과 위험성 정도에 따라 각각

2010년, 2013년 및 2018년까지 등록 시한을 사실상 연기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essencia는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벨기에 기업의 사전등록 경험을 볼 때, 유럽화학청(ECHA)의 REACH 관련 IT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벨기에 기업들이 사전등록과정에서 플란더스 지방정부의 REACH 이행관련 지원 체제였던 VLARIP 및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WALRIP가 많은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등록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10월 중 이들 지원제도를 통해, 벨기에 자동차·그래픽·종이·섬유산업계에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REACH 등록을 적극 촉구한 바 있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한편 essencia에 따르면, 유럽 차원에서는 EU 27개국에서 6만2천개의 기업이 2백20만개의 물질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전문지인 ChemicalWatch에 따르면, 인도기업들은 인도 내 REACH 관련 서비스 제공기업 부족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ORs들이 사전등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천2백개 화학물질이 인도정부의 화학수출협회(chemexcil)가 설립한 유일대리인(OR)을 통해 사전등록됐는데, 이 중 절반이 염료와 안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chemexcil이 설립한 인도의 REACH 헬프데스크인 REACH Support와 Chemexcil의 REACH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인도기업들의



공식적인 OR이자 제3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스웨덴 컨설턴트인 Sustainability Support Service의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이 OR을 통해 사전등록된 7천2백개 물질 중 염료와 안료 제조업체들이 3천4백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OR이 대표하고 있는 6백50개 기업 중 3백60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사전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나 많은 인도 기업들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질의 EINECS 번호를 알지 못했으며, 겨우 물질의 브랜드명이나 상업적인 이름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인도 내에서 사전등록을 지원할 시험기관, 컨설턴트, 전문변호사 등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OECD 실험실 기준에 의거해 승인된 시험소가 겨우 12개에 불과하며, 이 중 절반이 대형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인도에서 REACH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인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유럽기업으로 Clariant·Ciba 등이 대표적이나, 아직은 대부분의 인도 수출업체들은 유럽 기업들을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인도의 2007년 대EU 화학제품 수출은 23억 유로로, 인도의 대EU 총수출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사전등록시한이 종료된 구랍 1일을 기준으로 아직은 유럽 및 비유럽 기업의 REACH 사전등록 물질 수나 세부 물질명·완제품명 등에 대한

세부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EU 시장에 화학물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REACH 등록번호가 사전 전제조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Essencia에서 평가한 대로 사전등록한 수출상이나 판매상은 상당한 본등록 유예기간을 얻은 셈이어서, 향후 유럽 바이어와의 상담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국내 화학물질 수출업체는 물론이고,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섬유를 비롯한 다른 제품 수출업체들도 REACH 사전등록번호 준비 및 향후 REACH 등록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독 자 켈 령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